

광주 기업들, CES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증명

〈소비자 가전 전시회〉

17개사 참가 상담 432건·계약 6건·협약 11건

41개국 6460명 찾아 혁신제품·기술 등 체험

광주시는 지난6일부터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한 지역 지원기업 17개사가 총 432건, 2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CES에 4년 연속 참가하며 ‘광주공동관’과 ‘K-Startup 통합관’을 동시에 운영,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광주공동관에는 지역기업 13개사가, K-Startup 통합관에는 4개사가 참여했다.

전시 기간 나흘 동안 광주공동관에는 41개국에서 6460명이 방문했다. 광주시와 참가기업들은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기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신제품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기업 10개사는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MOU) 11건을 체결했으며, 계약 6건도 성사시켰다.

㈜엘비에스테크는 이탈리아 스타트업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보행

경로 안내 소프트웨어를 웨어러블 장비에 접목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투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기업에 태양광 패널 설치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울더타임은 북미 유통업체 2곳과 여성안전 스마트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헨드는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 협력사와 데이터 공유 및 기술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지역기업 7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광주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엘비에스테크는 올해 신설된 ‘여행·관광(Travel & Tourism)’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은 △고스트패스

㈜ △㈜답센트 △마인스페이스㈜ △㈜엘비에스테크 △㈜울더타임 △이노디테크 ㈜ △㈜인디제이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CES 2026 성과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해외 바이어와의 후속 협의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4년 연속 CES 참가를 통해 광주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해 ‘광주공동관’과 ‘K-Startup 통합관’을 동시에 운영했다.

광주 생산·수출·건설 호조…소비는 감소

광주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이 증가한 가운데 소비는 감소했다. 전남은 제조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 수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34.3%), 전자부품(54.6%)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자동차 등 기계류(71.3%), 전가전·전자부품(59.8%)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했고 수입은 전가전·전자부품(15.1%) 등과 함께 10.2%가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3.4%)이 증가했지만 대형마트(17.2%)가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투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의 기타(384.6%), 상업용(46.5%)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6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6600명 줄었으

나 임금근로자가 2만5400명 늘어 전년 동월 보다 1만88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전남의 실물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제1차금속(-1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7%)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철강금속(10.7%), 화학공업제품(3.9%)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고, 수입은 농·수·광산물(6.4%)을 중심으로 4.7% 감소했다.

이와 함께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주거용(87.2%),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기타(31.7%)가 감소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9.9%가 줄었다.

임금근로자는 1만600명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가 1만8400명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78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2%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해 11월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수치를 유지하고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0.1%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노동청, 공공건설 현장 불시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광주 서구 유촌동 ‘유택동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5대 중대재해 유형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겨울철 한파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노동청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서구, 현장 감리단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치솟는 환율에 기준금리 ‘5연속 동결’

연 2.5% 유지…물가·서울 집값 자극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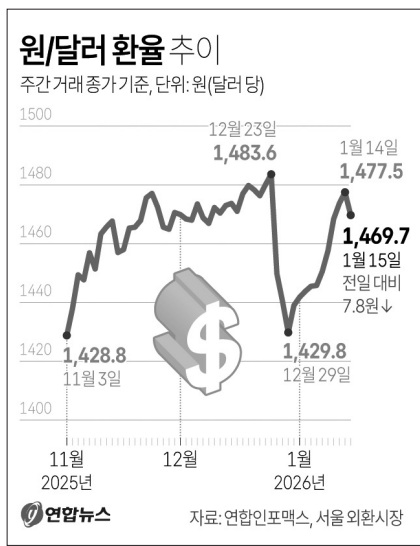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 1500원 선에 근접한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쭉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역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피한 이유로 추정된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포인트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새해 첫 회의까지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최소 약 7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된 셈이다.

금리 장기 동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있다.

연방뉴스

미분양 부담…지역 주택사업전망지수 여전히 ‘60선’

1월 소폭 상향에도 비수도권 평균 밑돌아

광주·전남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비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월 광주와 전남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각각 69.5, 63.6으로, 전국 평균(80.5)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평균(77.3)보다 낮았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광주는 지난해 10·15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며 반사적 이익으로 지난해 11월 80.0까지 올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지난해

66.6까지 떨어졌다.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등 광주도 점진적으로 개선됐지만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상승폭(2.9p)을 보였다.

전남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지난해 66.6에서 3.0p 하락한 63.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만 가구에 육박하며 약 13년 만

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 중 상당 물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지방 산업단지 활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주택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인식 역시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남은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높아 재고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주택 사업 추진이나 공급확대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0.5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10.9p 상승해 95.4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4.8p 상승한 77.3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 성과

303억원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도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금융상담, 채무조정, 금융교육, 복지 연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했다.

그 결과 금융복지상담 5054건, 채무조정 지원 353건(부채총액 약 303억원), 복지 연계 114건, 제비용 지원 81건을 기록했다. 또한 금융교육 130회, 4366명 참여로 도민 금융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특히 지난해 3월 해남군과 협력해 ‘해남 상담소’를 개소해 해남·완도·진도·장흥·강진 등 남부권 도민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목포 서부센터를 이용한 상담실적이 전년 474건에서 750건으로 늘어나며 약 58%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전남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와 연계한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상담, 지역 대학·지하철 센터와의 협업,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컨설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토털 금융복지 실현에 힘썼다.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2025년은 도민 결의로 더 가까이 다가간 해였다”며 “올해도 전남도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 맞춰 민생밀착형 금융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남 순천에 동부센터(061-727-2590), 전남 무안에 서부센터(061-285-3980), 해남군에 해남상담소(061-533-3990)를 두고 도민에게 채무조정과 금융교육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들이 전남도에서 금융부스를 운영, 금융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